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씨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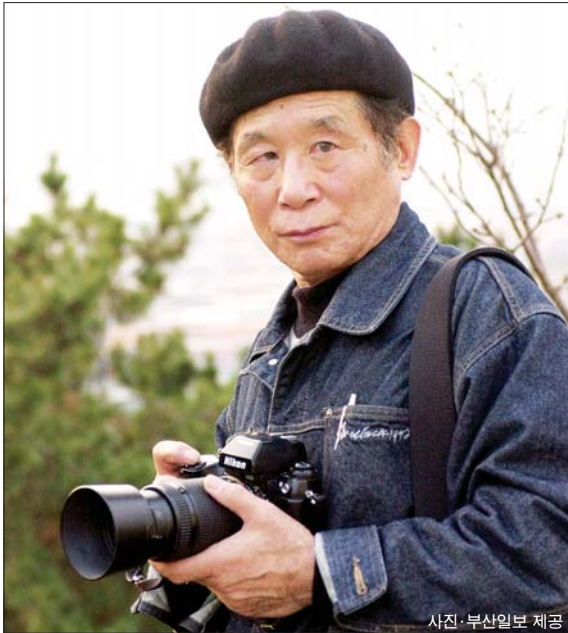
굴곡진 서민 삶 렌즈에 담아... 2006년부터 본지 작품 연재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지평을 연 작가 최민식(대연1동)씨가 지난 12일 오전 8시40분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1928년 3월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적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고인은 화가의 꿈을 키우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낮에는 자동차 기능공으로 일하다 밤에는 미술학원을 다녔다. 1955

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중앙미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렌즈에 담아오며 다큐멘터리 1세대 사진작가로서 명성을 쌓아온 최민식 작가가 지난 12일 별세했다.

현책방에서 에드워드 스타이켈의 사진집 '인간 가족'을 보고 사진을 공

부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고인은 사진에 입문한 후 55년간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시각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인간'이라는 주제에 천착해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는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본지에 '최민식의 진실+삶 이야기'라는 고정 코너를 통해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 큰 호응을 얻었다.

서민의 고단한 삶과 소외된 이웃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는데 주력해 온 고인은 '카메라의 펄프리트'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고인은 1968년 '인간(HUMAN)'이라는 제목의 사진집 1권을 낸 이후 지금까지 모두 14권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사진에 예세이를 더한 사진집도 출간해 주목을 받았다.

고인은 2008년 자신의 사진작품 원판 10만여 장 등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해 민간기록 국가기록 제1호로 지정된 바 있다.

성금 천만원 기탁

한국주택금융공사 백수열 이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백수열 상임이사는 지난 5일 남구를 방문해 남구정장을 예방

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전해 달라며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백 이사는 "내년 문헌금융 단지로 이전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대표해 소외계층을 돕는 차원에서 성금을 전하게 됐다"며 "남구의 가족으로서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봉사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설을 앞두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 가구 200세대에 전달됐다.

백 이사는 성금 전달을 마친 후 대연5동에 위치한 남구노인복지관을 찾아 동행한 직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급식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나 원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밝은 내일을 위해 면학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나 원장은 또 최근 대연3동 장학회 발족에 앞서 300만원의 장학금을 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그랜드자연요양병원 나용승 원장

대학생 장학금 전달

나용승 그랜드자연요양병원장은 지난 1일 병원 내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6명의 대학생들에게 모두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화제의 인물 - 대학 입학 앞둔 이주여성 호 티파 씨

안정된 직장 취직이 꿈

베트남에서 시집은 호티파(대연2동·28)씨는 올해 대학생이 된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급형디자인과에 합격한 그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2008년에 한국남성과 결혼해 올해로 결혼 5년차를 맞은 그는 한국 생활에 조금 적응이 되자 대학에 갈 계획을 세웠다. 3년 전부터 준비한 대학 입학은 주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폴리텍대학 교수로 있는 김준호교수의 도움이 컸다. 김교수는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게 학교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을 물론이고 졸업 후 취업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기로 했다.

왜 어려운 대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한국으로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돈을 벌기위해 대부분 공장을 다니는데 저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전문직 여성으로 일



하면서 남편에게는 물론 제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고 말했다. 호티파씨는 이번 대학 진학 외에도 결혼이주여성으로는 보기 드물게 공공기관 주민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 등 현실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국제 청소년 21의 다문화 사업지원센터(대연5동)에서 한국어와 영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는 "한국으로 시집와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힘든 일도 많지만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류진아 기자

만/갑/을/미/마

대형 창작공간 마련할 터

부산미술협회 오수연 이사장

한국화가 오수연(용호2동 58)씨가 지난 1일 부산미술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오 이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산미술협회는 10개 분과 1,9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부산 최대 규모의 문화단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재정적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임기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회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500평 이상의 대형 창작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창작열을 고취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그의 굳은 의지다. 또 부산지역을 예술과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을 철거하지 말고 전시장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밖에도 청년작가를 회원으로



대거 영입해 활력을 불어넣고 상조복지기구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을 마련,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꾀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오수연 이사장은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동아대 회화와 외래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문화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웃돕기 성금 해마다 전달

남구한의사회 금 중철 신임회장

금중철 국전경화학원원장이 지난달 23일 관내 모 음식점에서 열린 남구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금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이준업 직전 회장과 함께 남구정장을 예방하고 어려운 가정의 자녀 교육 부담에 써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금 회장은 "직전 회장 때부터 3년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할 예정이며 회원들과 뜻을 맞춰 무료 진료 봉사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천연신약을 정책 등으로 한의계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회원 가족들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데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 회장은 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단합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회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밝



했다.

금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남구한의사회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은 물론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유경희 기자

아름다운 화음으로 행복 전파

남구 오록도여성합창단 김분희 단장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합창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김분희(대연1동·58)씨가 최근 부경대 비스타스에서 열린 오록도여성합창단 이·취임식에서 새로운 단장으로 취임했다.

김 단장은 "전임 김옥련 회장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합창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 화합과 결속을 다지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단장은 이를 위해 회원들과 잦은 만남을 통해 '한마음 한소리'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역량 있는 회원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 단장은 "하반기 열리는 발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원과 힘을 모으는 한편 남구와 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오래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각종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화해서 회원들에게는 보람을 수혜자들에게는 기쁨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합창이라는 문화컨텐츠를 통해 단원들의 적극적인 재능기부를 당부했다.

찾아가는 음악회 등과 같이 지역주민 속으로 들어가 클래식 음악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합창곡을 선보이며 생활에 지친 심신을 달래겠다는 게 김 단장의 생각이다.



김 단장은 마지막으로 "남구오록도여성합창단은 지난 70년 7월 창단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단체"라며 "4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합창단의 위상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전 단원들과 합심 노력하겠다"며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분희 신임 단장은 16년 전 목련합창단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후 2년 전부터는 오록도여성합창단 부단장으로 활약하며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췄다.

발로 뛰는 사회복지 몸소 실천

오록도 친절지기

대연3동 송현경 주무관



복지관 근무 경험 행정 접목

소외계층 케어 노하우 호평

올 한 해를 시작으로 남구청 홈페이지와 전화 및 서면으로 접수된 친절공무원에 대한 주민들의 추천사례가 많이 접수되었다. 해가 갈수록 친절공무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져만 간다.

이번 달 주민들의 친절세례를 받은 대연3동 주민센터 송현경(43) 주무관은 오늘도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 주변 상가에서 기부한 주먹밥을 인근 경로당에 갖다 드려야 하고, 또한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나눠 줄 성·금품을 아이들의 감정 상하지 않도록 엄마처럼 다독겨려 주어야 하기에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는다. 이런 그녀의 배려와 친절이 감사하다는 민원인들의 칭찬으로 메아리치고 있다.

민원의 감정화씨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인 어머니가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예로사항을 성심껏 해결해 주신다며 감사의 엽서를 보내왔다. 민원인들도 간결함이 사회복지 관련 어려운 내용을 여러 번 질문을 해도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다른 기관에 연계된 사항까지도 직접 알아봐 주고, 신속하게 전

호했다고 한다. 박대원씨는 무료로 다리 및 심장 수술 후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시고 현재는 건강을 되찾았다.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돌보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말 밖에 할 말이 없어 죄송하다는 사연을 보내왔다.

사회복지 20여 년간의 베테랑의 면모가 다분히 묻어나는 송현경 주무관, 복지관에서 10여 년을 근무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퇴직을 하고 임신한 몸으로 다시 학업을 시작했다. 대학원에 다니며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공직에 관심을 두었다. 도전에 성공하여 첫 발령지 용호1동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시작해 발로 뛰는 사회복지를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최정순 기자

웃음·유머를 배워봅시다!
웃음·유머교실 회원모집 2개월 3만원 (수시모집)
조상영 웃음연구소 : 010-4567-2233 (부경대 대연캠퍼스 정문 앞 4층)



조상영 웃음연구소
「자격증 취득, 특별반」
매주(월) 오전 11~12시
매주(월) 저녁 7~8시
장소: 부경대학교 정문 앞 4층
• 선착순 100명 •
특별수강료 3개월: 9만원

부산예술회관
「웃음·유머 회원모집」
매주(화) 오전 11~12시
장소: 부산예술회관 4층
(TBN교통방송국 옆)
• 선착순 200명 •
특별수강료 2개월: 3만원

• 한국웃음치료 연구협회 회장
• 2011년 웃음·유머 명강사 선정
• 마더즈(유형영전문)병원 웃음건강 문화센터 원장
• 2011년 561회 명강사에 빛나는 웃음박사 조상영 직접 강의

아모레퍼시픽 헤라.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재미있게 같이 일해요!!!

- 급여외 의료비, 경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육아 보조금 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친절상담 - 최경숙 부장

주.야 직통상담 : 011-579-1122

아모레퍼시픽 남부오름지점 T.627-2225

헤라.설화수
판매·상담
☎ 627-2225



12개국어 전문 성인 교육기관

매월 초 개강!

MLS 외국어학원

기초문법, 영어회화, TOEIC, TOEFL, 토익스피킹, OPIC(오픽), SAT, 일본어, JLPT, 중국어, 新HSK,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터키어, 한국어

www.mls.kr, twitter.com/mlsbusan, facebook.com/mls6101500, cafe.naver.com/mls21c, cafe.daum.net/ohayo1

경성대 맞은편 21센츨리 O/T 12F 교육상담 610-1500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르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낯선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10:30~11:50
오후 06:40~08:0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